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4호 【루계 제25723호】 주체106(2017)년 8월 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미안 오그분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7월 25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켜주시였다.

지난 3월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여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박물관일군들, 강사들과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박물관창립 69돐을 맞으며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깃든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 강사,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을 우리 당의 충직한 혁명가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대해같은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여기에는 박물관의 강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강사, 종업원들이 오늘의 이 영광을 언제나 잊지 말고 혁명전통교양의 희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충정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과 육친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제1부관장 박정식, 부장 최춘희, 로동자 강영순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과 정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박물관의 전체 일군들과 강사,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경히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물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며 박물관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 력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참관조직사업과 해설강의를 더욱 심도있게 벌리며 혁명사적물들을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민족사적대경사에 접한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한없이 북받쳐오르고있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도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발사당일 밤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나가시여 시험발사를 몸소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텔레비죤에서 뵈오면서 형언할수 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본토전역을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로 기습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미국놈들이 혼비백산하여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추종세력들이 당황망조해하고있으며 온 세계는 주체조선이 이룩한 또 하나의 기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분별을 잃고 쩍하면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놈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진행하도록 하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미제가 질겁하여 아우성을 치고있음을 일본땅에서 시시각각 보고있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주체위업의 최후승리가 이룩될 력사의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사회주의강국의 꿈과 철천지원쑤 미국과의 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고계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상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최후승리의 지선침로를 몸소 열어놓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속도로 세계가 알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시고 미국놈들에게 종장혼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서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더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백두의 정치대국, 군사강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떨치시고 세계정치를 쥐락펴락하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하늘처럼 높이 받들어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나라의 존엄과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흰기를 들고 항복서를 바칠 때까지 숨돌릴새 없는 강타를 안기며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질풍처럼 내달리는 무적의 백두산강국의 해외공민된 더없는 영광을 안고 조국과 숨결도 보폭도 같이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처럼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어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킬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여나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두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애족애국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의 각급 조직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지며 민족교육을 비롯한 총련의 전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을 위해 애써 일하며 애족애국의 구슬땀을 더 많이 흘려 총련과 동포들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온갖 난관을 과감히 뚫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안에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합세하며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를 옹위선전하는 대외활동과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겠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최상최대의 념원은 주체조선의 심장이시고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6(2017)년 7월 30일 일본 도꾜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진행된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속에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평양과 백두산지구에서 진행된다.

주체106(2017)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축전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 진보적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대표단들과 대표들, 각계인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혁명의 성지방문, 백두산해양맞이모임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있게 된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조선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국제적회합으로 될것이다.

전민총돌격전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3대혁명붉은기단위 당조직들에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단위 당조직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의 전투목표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을 똑바로 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원산통신제품공장 당조직에서는 지난해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기세드높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서 앞장서기 위한 사업을 대중운동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통이 크게 세운 다음 초급일군들에게 단위들을 분담하여주고 매월 결의목표실현정형을 실속있게 총화하고있다. 모범적인 3대혁명기수들과 로력혁신자들을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잘해주는것과 함께 공장구내에 힘있는 구호와 직관선전판을 많이 게시하여 대중운동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책임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확보해놓는 한편 유휴자재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공장기술개발력량을 발동하여 2대의 연신기를 치차식으로부터 피대식으로 개조하고 3대의 종형압출기를 제작하여 생산을 1.9배로 장성시켰다.

또한 종합축사와 남새온실, 양어장을 꾸려놓고 종업원들에게 고기와 남새, 메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그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줌으로써 지난 6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게 하였다.

룡등탄광 1갱 2중3대혁명붉은기 굴진3소대 당조직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대중적영웅주의,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소대가 조직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올리고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23돐이 되는 날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 대담한 결의목표를 내세우고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였다.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정대와 폐루, 착암기를 비롯한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한편 앞선 발파방법과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굴진속도를 높임으로써 지난 6월말 년간 기본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으며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 만포방사공장 당조직에서는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은을 내고있는 공장이라는 평가의 표시를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대중운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지난 1월 대중운동결의목표에 4월 중순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전으로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다음 구내에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들을 게시하고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양털, 데트론솜을 비롯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연사기의 회전수를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함으로써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이게 하였다.

로력혁신자들을 소개선전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등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고조시켜 4월 중순까지 7명의 3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를 배출하고 지난 6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수지건재공장 당조직에서는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면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에게 중요생산작업반들을 분담시켜 도와주게 한 다음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였다. 한편 작업반별, 개인별경쟁도표를 게시하고 일별, 월별로 계획수행정형을 실속있게 총화하면서 대중의 생산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시안의 수매소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파수지 100여t을 수집하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비닐벽지형타를 새롭게 개조하는 등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6월 상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질좋은 수지건재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추어놓았다.

평양도시건설려단 3대혁명붉은기 건구대대 당조직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목재가공품들을 생산보장하게 하고있다.

지난 1월 목재가공에서 선행공정인 제재공정의 현대화에 필요한 치차와 베아링을 비롯한 각종 부속품들과 강재를 확보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종전의 제재식동근톱기를 띠톱기로 교체함으로써 제재실수률을 훨씬 높이였다. 목재건조로를 개조하여 건조기간을 15일간으로부터 5일간으로 단축한데 이어 자동대패기계, 실톱기, 연마기 등 수십점의 목재가공설비와 기공구들을 창안제작하여 생산능력을 4배로 장성시켰다.

이 나날 대대에서는 전쟁로병보양소에 보내줄 책상과 의자 등 20여종에 수백점의 가구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한것을 비롯하여 년간생산계획을 지난 4월까지 완수하고 7월에는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만리마선구자대회전으로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푸산세멘트공장 당조직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침으로써 많은 석탄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능력을 2배로 높여 지난 6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청진강재공장, 신창수산협동조합, 평남배수리공장 등 170여개의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대중운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올해 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 결속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고조되고있는 속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7월 20일까지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현장을 타고앉아 시비년도 비료생산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일터마다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일별, 주별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올해 주체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를 벌리는 속에서 맡겨진 비료생산계획을 일별, 주별로 어김없이 수행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지만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켰다.

시비년도 비료생산전투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해 맹렬한 공격전을 벌리던 지난 7월초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한 흥남로동계급의 투쟁기세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비료직장과 발생로직장을 비롯한 생산현장들에 일제히 나가 국방과학전사들의 불굴의 투쟁기풍으로 시비년도 비료생산고지점령을 위한 결사전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손을 잡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였다.

영농비료생산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경쟁열풍이 모든 단위, 직장, 작업반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졌다.

2질소직장 로동계급은 산소분리기보수가 제기되자 맹한속에서 분초를 다투는 치렬한 전투를 벌렸으며 발생로직장 로동계급은 가스발생공정의 되돌이회리통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슬라크를 제거하여 발생로의 숨결을 지켜냈다.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1합성직장과 2합성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의 로동계급은 당앞에 결의다진 날자에 기어이 시비년도 비료공급계획을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로 설비들의 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시비년도 비료생산투쟁의 나날에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암모니아합성촉매를 폐촉매로부터 재생리용하기 위한 시험생산에서 성공하였을뿐아니라 메탄화촉매생산의 주체화도 실현하여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주체비료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릴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기술혁신투쟁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지난 4월에만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공업기술연구소에 성능이 높은 콤퓨터와 수십종의 실험용시약들, 실험기구들을 보장해주어 폐정제용메이온교환수지를 소금물과 류산으로 완전재생리용할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경영활동에서 큰 실리를 얻게 하였다.

지금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를 전례없는 주체비료생산실적으로 빛내이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받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 높이 울려간다.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열풍이 차넘치게 하자

문답식학습방법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이끄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창조하신 문답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이다. 이것은 사상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위력한 학습방법이다.

며칠전이였다. 한 일군이 우리에게 전화로 집단주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물어보는것이였다. 리유인즉 기관에서 문답식학습경연을 하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여 어떤 보충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다는것이였다. 그 일군과 서로 묻고 대답하며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나니 결국 우리는 전화를 하면서 문답식학습을 한셈이 되였다.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고 천만군민의 사상과 정신력이 발동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날로 높은 성과가 이룩되는것이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실속있게 하여야 당정책을 똑똑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수 있는데 학습에서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입니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혁명적량식을 얻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혁명투쟁의 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학습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첫째가는 요구로 제기하고 여기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결과 전당에 정연한 학습체계가 확고히 서고 우리 나라는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사상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사상사업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지금도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주체90(2001)년 9월 21일에 진행되였던 중앙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학습경연때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시범문답식학습경연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경연장에 나오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전체 출연자들과 참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출연자들의 대답과 노래를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실 때 그이를 우러르는 사람들의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론증한 경연을 통하여 출연자들과 참관자들은 일찌기 학습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을 창조하시여 전당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그리고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돌이켜보면 감격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인민문화궁전은 단순히 문답식학습경연장소만이 아니였다.

문답식학습방법에 대한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 당력사의 새로운 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중앙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식학습경연을 지도하시면서 우리 당 사상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며 문답식학습방법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답식학습경연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줄뿐아니라 다른 참관자들을 교양하는데도 매우 좋다고, 이렇게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교양하는데서는 문답식학습경연보다 더 위력한 학습방법이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문답식학습경연의 성과와 경험을 잘 살려 우리 당이 내놓은 독특하고 우월한 문답식학습경연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자신께서 처음으로 문답식학습경연을 참관한 때로부터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다고 하시며 근 30년만에 문답식학습경연을 다시 보니 이 학습방법이야말로 독창적이고 우월한 학습방법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하시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깊은 교시에 문답식학습방법의 위력으로 우리 당의 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져오신 그이의 거룩한 혁명령도사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감회깊이 회고하신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꽉 들어차게 하자면 당사상사업을 개선해야 하며 그러자면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서 나오는 야학방의 학습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영화에서는 야학생들이 《바다편》과 《땅편》으로 갈라져 경쟁적으로 우리 나라의 바다와 땅을 자랑한다. 이 과정에 그들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일제침략자들의 피묻은 구두발에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힘을 합쳐 원수를 때려부시고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조국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똑똑히 가지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장면을 실례로 드시면서 일군에게 바로 이것이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이며 이것은 학습에 모든 사람들을 참가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알기 쉽게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문답식학습경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본보기단위까지 친히 정해주시면서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 문답식학습방법을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우선 문화예술부문의 많은 단위들에 문답식학습방법이 널리 도입되고 마침내 주체62(1973)년 11월에는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이날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예술인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문화예술부문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전통적인 학습방법을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후 공장, 기업소, 기관, 협동농장 그 어디에서나 열정적으로 진행된 학습경연과정은 문답식학습방법이야말로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시기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를 지도해주신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새 세기의 첫해에 그이께서 또다시 시범문답식학습경연을 지도하신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를 지도해주시면서 지피신 사상혁명의 불길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던것처럼 그이께서 선군시대에 진행된 시범문답식학습경연을 지도하여주신것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사상사업의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광범한 대중의 학습열의를 높이며 학습에서 집단적인 통제와 동지호상간의 방조를 강화하고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순간도 멈춤없이 휘몰아치게 하는데서 문답식학습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만리마시대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때에 온 나라에 문답식학습경연의 들끓는 분위기가 서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학습열의가 부쩍 높아져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이끄시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상의 강국, 정치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가는 강성조선의 무궁찬란한 래일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깊이 새겨주신 학습의 중요성

오늘도 사람들은 마당거우밀영에 대해 말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군정학습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의에 출연하시면서 개별적인 대원들의 학습도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혁명적학습기풍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을 부르시여 학습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는 집이 하도 가난해서 우리 글을 한자도 배우지 못한채 유격대에 들어온 신입대원이였다. 이러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대원은 학습에 열중하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동안의 학습정형을 물으시자 대원은 그이께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저는 머리속이 캄캄해서 글을 못 배우겠습니다. 글을 배우느라고 애쓰는 시간에 사격련습이나 더 해서 일제놈을 많이 잡는게 저에게는 제일 상책일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그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에 서있는 가느다란 고로쇠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는 무엇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본래 농사일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대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도끼자루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답을 아주 잘했다고 긍정해주시고 동무가 농사를 지어보았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야 그런 리치를 알겠는가고, 혁명사업에서도 꼭같은 리치가 작용한다고, 무엇이 어디에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야 혁명을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적과의 싸움에서도 싸움료리를 모르는 사람은 적을 많이 잡을수 없소. 총만 가지고서는 적을 이길수 없소. 학습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혁명을 해낼수 있겠소. 총을 바치고 집에 가서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수밖에 없으니 어느 길을 택하겠소.

참으로 많은것을 깨우쳐주는 의미심장한 가르치심이였다. 대원은 자기의 잘못을 심각히 뉘우치였다.

적과 싸워 이기자면 알아야 한다. 그 승리의 비결을 알자면 배워야 한다.

세찬 충격을 안고 중대에 돌아간 그는 동지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터치였다.

《총만 가지고는 일제놈들을 칠수 없소. 알아야 싸움도 잘할수 있다는것을 나는 단단히 깨달았소. 이제부터는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개별적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학습은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라는것을 일깨워주시였다.

마당거우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학습의 나날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학습은 혁명가의 생명선이라는 참된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렇다.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본사기자 림정호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제해설 |

《혁명하는 사람은 학습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제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데서 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학습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의 첫 공정이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되며 혁명가적풍모와 자질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가게 된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도,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학습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혁명가들이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할 사업이 바로 학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에는 우선 혁명가들이 학습을 생활화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세상에 타고난 실력가란 없다. 높은 실력은 일상적인 학습과정에 이루어지고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고 상식을 넓히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다.

혁명가가 자신을 사상적으로 수양하고 혁명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가장 필수적인것이 학습이다. 우리 당이 일찍부터 학습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내세우고 깊은 관심을 돌려온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습은 오분열도식으로가 아니라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깜빠니야적으로 하는 학습은 아무 소용도 없다. 당면하게 제기된 바쁜 일을 해제낀 다음 시간을 내여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학습을 뒤로 미루는것은 학습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다.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적과 싸우는 어려운 나날에도 피나는 전투지연정 학습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간고한 행군을 할 때에도 글쓴 종이를 앞사람의 배낭에 붙여놓고 읽었고 휴식할 때에는 나무가지로 땅에 글을 쓰면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혁명적학습기풍을 따라배워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에는 또한 혁명가들이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학습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시대는 전진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지난 시기의 지식과 경험만을 내세우거나 나이와 경력, 직위와 공로가 있다고 하여 학습을 소홀히 한다면 혁명발전의 요구에 자신을 따라세울수 없다.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끼는것처럼 오랜 혁명가라고 하여도 학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사상에 녹이 쓸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없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학습하여 혁명적량식을 얻고 투쟁목적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체득해야 혁명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누구나 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력을 높일수 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을 한시도 중단없이 꾸준히 하여야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에 담겨진 참뜻을 깊이 새기고 혁명적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높은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명 주 혁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원산시당위원회에서

최근 원산시당위원회에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학습조직과 지도를 방법론있게 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이 혁명실천과 결부되여야 학습도 실속있게 되고 혁명과업수행도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습니다.》

이곳 시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학습을 조직지도하면서 중요하게 내세운 하나의 원칙이 있다.

학습을 단순히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가 아니라 실천투쟁에 실지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자.

지난 1월초 어느날이였다.

시당책임일군은 어느 한 부서의 일군들을 만나 격식없이 학습담화를 진행하였다. 학습을 많이 했다는것이 알리였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진수와 체계, 그에 따르는 내용들을 환히 꿰들고있었던것이다.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에 기초하여 일감을 잘 찾아쥐고 실천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책임일군은 그 방향으로 담화를 이끌었다. 그런데 어떤 일군들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에 비추어 올해전투목표에 반영한 일감들을 혁신적으로 제기하는 반면에 일부 일군들은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켜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른 부서 일군들속에서도 이러한 편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학습을 단순히 외우는것으로 그쳤을뿐 실지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산지식으로 되게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훈을 찾은 시당위원회에서는 학습이 철저히 실천에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나갔다.

그러면 학습을 실천과 어떻게 밀접히 결부시켜나갔는가.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학습토론과정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천과 결부시키는 중요한 공정으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학습강사들을 잘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토론시간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습토론을 진행할 때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토론시간전에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것이며 그 방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토론을 통하여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새기게 되였으며 인민을 위한 일감들을 더 많이 찾아쥐게 되였다.

이렇게 진행된 학습토론은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다.

학습토론이 자기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 실천에 적극 이바지되여 좋았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당정책관철을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도 중요한 학습과정으로 되도록 잘 이끌어나갔다.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서들에서 이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협의회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하여 협의회에서는 로작의 구절구절을 자료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을 찾게 되였으며 모임은 명실공히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과 결부하여 다시한번 학습하는 과정으로 되였다.

이렇게 모든 계기와 공정이 그대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어져나갔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는 학습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것처럼 여겨오던 낡은 관점과 태도에 종지부를 찍고 학습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서게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좋은 성과들로 이어졌다. 최근에만도 시에서는 동명산지구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위한 2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것을 비롯하여 무궤도전차의 정상운영, 승강기운영문제와 땔감문제해결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좋은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학습을 명실공히 혁명실천을 위한 학습으로 되도록 모든 계기와 공정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적극 활용해나가고있는 이곳 시당위원회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윤명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1일에 진행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창호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6(1957)년 8월 2일 안주탄광(당시)을 찾으시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부들의 휴식조건과 음료수를 충분히 보장하며 병원을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등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석탄생산에서 제기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다 풀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주탄전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석탄공업부문의 본보기가 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탄광의 현대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안주탄전은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찬 연혁을 아로새기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안주탄전의 로동계급이 1970년대에 《피바다》근위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막장들마다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으며 80년대속도창조의 일장에서 기적을 떨치면서 혁명의 년대기마다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보고자는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강원도정신창조자들과 검덕의 영웅소대원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로 일터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탄광들에서 전망성있는 채탄장들을 넉넉히 마련하며 갱관리, 채굴조건을 개선하고 기계화비중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탄부들을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여 당의 은정속에 일떠선 탄부도시 청남구를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세계를 진감시킨 대경사, 특대사변을 또다시 맞이한 환희와 격정을 안고 모든 탄부들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각지 당조직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어디 가나 혁명적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새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깊이 파악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앞장서고있는 여러 단위의 당조직들을 소개한다.

학습열풍은 일군들속에서부터

강계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에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을 중시하고있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학습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주목되는것은 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선것이다. 누구보다 시간이 긴장한 그들이지만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당정책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학습시간이 따로 없다. 사무실과 전투현장이 그대로 학습장소이고 단위들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 담화를 하고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이 또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되고있다.

시당책임일군들의 이런 혁명적학습기풍은 일군들속에 혁명적학습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일군들이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기치를 든데 맞게 시급기관들에서도 일군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사업에 앞장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급기관 당조직들에서 직급별, 부서별문답식학습경연 등을 자주 조직하는것과 함께 매일 아침독보, 저녁사업총화시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과정에 발휘되는 좋은 기풍을 여러 모임에서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도 적극 안받침해나갔다. 이 과정에 시안의 일군들속에서는 자각적인 학습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학습강사의 역할과 실효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학습기풍의 된바람을 일으키는데서 그 방도의 하나를 학습강사들의 역할에서 찾았다.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학습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당위원회에서는 학습강사들을 실무수준과 책임성이 높으며 대중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강사의 날 운영을 잘 짜고들어 그들의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학습강사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데서 그들의 현장침투를 중시하였다. 사람마다 사업조건과 임무, 수준이 다른 조건에서 해당 단위의 실정을 잘 알고 대중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강의를 진행하는것은 강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본담보의 하나이라고 본 당위원회에서는 학습강사들이 여러 계기들에 령도업적단위인 전기수리직장, 2선광직장을 비롯한 생산전투현장들에 나가 실태를 깊이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강의에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강의에서 해당한 내용을 평기전달하는데만 그치던 편향을 극복하고 강의가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강의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결과 기업소안에 혁명적학습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이처럼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학습강사들의 역할문제를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쥠으로써 응당한 실효를 거두게 되였다.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장시온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쥐고 학습에서 실효를 높이고있다. 방송기재를 통한 선군사상학습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을 종업원들속에 더욱 깊이 인식시키겠는가를 두고 생각하던 초급당일군은 방송기재를 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보여주는 도서들을 방송기재를 통해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수록된 록음편집물도 계기에 따라 반복하여 내보내도록 하였다.

작업반종업원들의 시간별에 따르는 생산실적을 방송기재를 통해 알려줄 때에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자료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들을 실감있게 들려준 다음 높은 실적을 낸 종업원들을 평가해주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적인 노래, 시 등도 내보내여 종업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있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생산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그러니 학습의 실효를 높이는데서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쥐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사기자 최영길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8월2일로작발표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평양시의 구역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8월2일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마흔세해가 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는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뜻깊은 로작발표기념일을 맞이하는 평양시안의 당조직일군들은 일찌기 전당김일성주의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여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평천구역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우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구역당위원회 조직부에서는 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고있다. 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의 련이은 완전성공을 비롯한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들과 결부된 당정치사업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고있다. 그 나날에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값높은 한생을 바친 평양시건설사단 평천구역려단 정치부장이였던 로력영웅 한일진동무와 같은 훌륭한 당일군이 배출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피복공장과 평천일용품수출품공장을 정형단위로 내세운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평천고려약공장, 평천김치공장, 토성제약공장, 평양전동기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면모가 일신되고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 구역에서 평양시체육촌의 종합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당이 정해준 기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한것은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뜻과 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 힘있고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진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만경대구역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건설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지난해에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쟁로병보양소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전쟁로병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조아박은 그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며 결사전을 벌리였다. 대오의 선두에는 구역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개하는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지난 전승절을 맞으며 준공된 전쟁로병보양소는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적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선 구역안의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열렬한 충정의 결정체이다.

최근년간 구역당위원회가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한 실례는 많다. 룡악산을 산수가 절경인 인민의 명산으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룡악산유원지입구의 땅속에서 많은 물원천을 찾아 온정호와 룡못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데 이어 여러개의 인공폭포를 건설하고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꾸린 사실, 남새생산을 높이고 양어를 근기있게 내밀어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할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온실에서 남새재배와 미꾸라지양어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남새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미꾸라지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은 사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서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사업은 당조직들이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은 높아지고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는 반석같이 다져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당조직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은 시안의 당조직일군들의 억센 신념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아래에 내려가는 걸음을 많이 걷자

개성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기층당조직강화를 위한 개성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초급당위원장들이 자기 단위에 착실히 발을 붙이고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밀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장 리영철동무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전개해나가던 지난 1월 하순의 일이였다.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리당위원장들을 시당에 부르려고 하였다. 농사차비가 뒤떨어진 단위들을 분발시키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뒤떨어진 단위의 리당위원장들은 물론 모든 리당위원장들이 자기 사업일정을 변경시켜 회의에 참가하여야 했다. 거리가 먼 단위들에서 오는 길도 간단치 않았다.

당책임일군은 시당위원회에서 기층당조직강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느라고 하였지만 빈틈이 있었다는것을 간과하였다. 해당 부서 일군들을 만난 그는 얼마전 한 농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리당위원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누군가가 회의준비때문에 못 나왔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리당위원장들을 실지로 도와주자면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사업조직을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손쉬운 방법에 매달리려던 일군들의 가책은 컸다.

이렇게 되여 리당위원장들을 부르려던 계획은 취소되였다. 리당위원장들이 올라오지 않는 대신 시당일군들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였다. 현지에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뒤떨어진 단위의 리당위원장들과 합심하여 농사차비를 추켜세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사업을 도와줄 분담을 받은 시당일군들이 전화통에만 매달리거나 잡다한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흙냄새, 거름냄새, 기름냄새를 풍기며 현실에서 발이 닳도록 뛰는 사업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장부터가 아래단위들을 찾아 많은 걸음을 걷는데 앞장섰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초급당위원회사업정형을 료해하는 사업도 철저히 단위들에 나가 진행하였다. 당의 방침집행정형과 군중과의 사업정형도 초급당위원장들을 불러 료해한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잡고 진행하였다. 당책임일군은 또한 주사업총화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찾아가는 걸음을 많이 걷는 일군들의 긍정적인 사업기풍을 찾아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였다.

지난 7월초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어느 한 저수지의 취수구공사를 하면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고있는 시안의 적지 않은 논에 물을 댈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을 때 부위원장 한덕수동무가 전투현장에 내려가 침식을 하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방대한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게 함으로써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초급당사업을 밀어준것을 비롯하여 초급당위원장들을 위해 바쳐온 시당일군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이런 사업기풍은 아래단위 일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였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지도와 군중과의 사업에 돌리게 되였다. 즉 사람과의 사업에 보다 주력할수 있어 그만큼 대중의 정신력을 무섭게 분출시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고려성균관 2단계건설을 비롯한 많은 사업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곳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시, 군당위원회들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은 돌이켜보아야 한다.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초급당위원장들이 상급당에 올라오는 걸음과 상급당일군들이 초급당위원장들을 찾아 내려가는 걸음중에서 어느 걸음이 더 많은가를.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이곳 시당일군들처럼 내려가는 걸음을 더 많이 걸어야 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리원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이것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행정대행할것이 아니라 배낭을 메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포착한데 기초하여 현장정치사업, 마음과의 사업으로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우리 당 경제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한다는것이다.

리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바로 그렇게 일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의 기수인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것, 바로 이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선차적힘을 넣은 문제이다.

군산림경영소를 군적인 전형단위로 만든 과정을 놓고보자.

지난해초 산림경영소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던 군당위원회 부위원장 김철룡동무는 심각한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이곳 일군들이 지난 시기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릴 대신 구태의연하게 현상유지나 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과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군당위원회는 조직부일군들로 산림경영소당조직에 대한 집중지도를 조직하였다. 당생활총화지도, 개별담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잣접기술이 높다고 자신을 특수하게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던 한 일군이 자기의 사상적병집을 송두리채 뿌리빼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게 된것을 비롯하여 일군들모두가 각성하고 분발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과학기술보급실과 청년향숙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일군들의 안목을 넓혀주었으며 나무모생산과 잣접림면적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었다. 양묘직장에서 용기에 의한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일것을 결심하고 달라붙었을 때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많은 비닐용기를 수집해준것을 실례들수 있다. 산림경영소는 령도업적단위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걸음을 내딛게 되였으며 이곳 초급당위원장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토론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당일군들이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정을 나누면서 그들이 당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 관철에 발벗고나서게 하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하도록 한것이다.

군적으로 제일 뒤떨어졌던 대덕협동농장의 전변이 그것을 보여준다.

군당위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거름실어내기 등 중요영농작업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조직부를 비롯한 각 부서 일군들을 작업반, 분조들에 파견하여 농장원들의 마음과의 사업을 앞세우도록 하였다. 수십명의 조직부일군들은 안해들과 함께 식료품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면서 우리 당 농업정책을 차근차근 해설해주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켰다. 제3작업반을 담당한 어느 한 과장은 초급일군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때문에 일에서 열성을 내지 않는 농장원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수차에 걸쳐 가정방문도 하고 그가 앓을 때에는 초급일군들로 병문안을 조직하면서 끝내 혁신자로 만들었으며 제4작업반을 담당한 부원은 뜨락또르고장으로 써레치기가 지연될 때 이신작칙과 헌신으로 돌파구를 열어 농장원들을 감동시켰다. 대덕협동농장은 지난해농사에서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올해농사에서도 단연 앞장서달리게 되였다.

군건설에서 가장 걸린 문제인 세멘트생산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장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 때에도, 화학일용품공장의 외장재생산을 추켜세울 때에도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정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 과정에 당일군들은 인간개조와 정신력발동의 능수로 준비되였으며 군의 경제사업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군당위원장 김영학동무는 말하였다.

《당조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어길수 없는 본도로 삼을 때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최근년간 우리 군당위원회가 다시금 확신한 진리입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군중관점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연안군 도남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당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군중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연안군 도남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그것을 말해준다.

언제인가 리당위원장이 농장양묘장에 나갔을 때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책임진 리동무와 함께 양묘장을 돌아보던 리당위원장은 조림분조의 채동무가 이윽토록 곁에 서서 주밋거리는것을 보게 되였다. 무슨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하고싶어 그러는것 같았다. 용건을 물어보려던 리당위원장은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곧 단념했다. 일정이 긴장하여 그와 품놓고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한편 이미 책임자로부터 양묘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이상 그에게서 크게 들을 소리가 있겠는가 하는 내심도 없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리당위원장은 조림분조에 회의지도를 하러 나갔던 리당일군으로부터 심중한 문제를 보고받게 되였다. 최근에 채동무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욕심도 없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여 그를 만나보았더니 《나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열성껏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 하며 못마땅해하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고 따져물으니 리당위원장이 양묘장에 나왔을 때 자기를 외면하였다며 못내 섭섭해한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은 리당위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났던 일, 기억조차 삭막해진 그 일을 채동무가 그토록 가슴속에 새기고있을줄은 몰랐던것이다.

군중은 당일군의 눈빛, 말 한마디도 무심히 스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개별적일군에 대한 감정을 초월하여 당조직에 대한 신뢰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

이튿날 리당위원장은 채동무의 집을 찾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 몰인정한 당일군때문에 며칠동안 마음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리당위원장의 진정에 감동된 채동무는 자기의 잘못이 더 크다며 스스로 비판을 하였다.

그후 채동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무모들을 튼튼히 키우기 위해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었다. 얼마후 그는 리당위원회의 믿음속에 조림분조장으로 임명되였다.

제1작업반 리동무와의 사업과정도 교훈적이다.

리동무로 말하면 지난 시기 과오를 범한데다가 일단 흥분하면 거친 성격을 걷잡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였다.

어느날 리당위원장이 그의 집에 찾아갔다. 리당위원장이 자기를 교양하려고 왔을것이라고 생각한 리동무는 불만이 어린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리동무, 나를 누이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이야기 좀 해봐요.》

그러면서 리당위원장은 살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리동무네 부모는 지금껏 농장을 위해 묵묵히 많은 일을 해왔다고, 이제는 자식들도 커가는데 부모앞에, 자식들앞에 떳떳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리동무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윽고 그는 리당위원장에게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터놓았다. 사실 결심하여 일을 잘해보자고 했다가도 저도모르게 못된 버릇이 되살아나군 한다고, 앞으로 곁에서 채찍질을 해달라고.

하다면 굳게 닫겼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연 묘술은 어디에 있는가.

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나 외면하던 나같은 못난이를 혁명동지로 존중해주고 친혈육처럼 위해주는 당일군의 진정에 감동되였습니다.》

군중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량있게 대할 때 그들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강서구역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홍원조선소에서

《황금해》호계렬의 만능어선 또다시 진수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홍원조선소에서 고기배를 새로 무어 바다에 띄웠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또다시 무어낸 고기배 《황금해-091003》호는 현대적인 어군탐색설비들과 통신수단, 능률높은 어구들을 갖춘 만능어선이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로동자들과 현장에서 침식을 같이하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는 한편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배무이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식의 만능화된 고기배설계를 최단기간에 완성하였으며 홍원조선소 로동계급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각종 설비와 부속품생산을 다그치면서 배무이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립체식배무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작업속도를 1.5배이상 높여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배무이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진수식이 7월 30일에 진행되였다.

송춘섭수산상, 관계부문, 홍원조선소 일군들,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진수사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이 하였다.

그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새겨안고 물고기잡이와 배무이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조국의 바다를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는 황금해로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바래움속에 《황금해-091003》호가 바다로 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갈 드높은 열의

각급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각급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이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이 대고조진군의 격류에 발맞추어 동맹원들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과 일군들, 직맹원들이 당의 부름에 산악도 격랑도 뚫고 헤쳐나가는 기개를 높이 떨치고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오늘의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궐기모임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정치사업자료들을 직맹조직들에 내려보내주었다.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 파견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탄광들사이, 채탄중대(소대)들사이에 애국탄증산운동을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하여 부문별, 단위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강원도직맹위원회에서는 수십명의 직맹이동해설강사들로 경제선동대를 조직하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총공격전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였다.

평안남도직맹위원회에서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호소성이 강한 직관판을 설치하고 직관선동경연을 실효성있게 진행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도안의 탄광들에 수많은 공구들과 탄차베아링을 보내주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단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성과를 일반화하여 산소열법용광로동체조립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데 기여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송림시) 직맹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구전시회를 조직하여 380여종에 수만점의 공구를 자체로 마련하였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술자, 기능공들사이의 기술혁신경쟁열풍을 일으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40돐이 되는 올해 석탄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전국의 탄부들에게 호소한 자강도공급탄광의 초급직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경쟁을 활발히 벌려 상반년 굴진계획과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수만t의 석탄을 증산하여 상반년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수풍발전소 초급직맹위원회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으며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직맹돌격대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돌격대가 맡은 상반년 굴진계획을 광명성절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5월말까지 앞당겨 수행하였다.

숙천군,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와 박성군직맹위원회 위원장 서성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적종합직장 정방공 표춘옥을 비롯한 많은 직맹조직들과 일군들, 직맹원들이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혁신과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각급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농근맹원들도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투쟁하고있다.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상반년기간 수십건의 정치사업자료를 각급 농근맹조직들에 내려보내주어 교양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도, 시, 군농근맹위원회들에서 직관선동경연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와 김매기, 가물피해막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6월 수백명의 중앙과 도, 시, 군일군들을 가물피해막이전투현장에 파견하여 화선식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뜨락또르들에 수리공구를 갖추어주기 위한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뜨락또르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와 삼지연군, 증산군, 홍원군, 금야군, 락산군, 청단군, 배천군, 신평군, 북청군농근맹위원회들,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초급농근맹위원회, 고원군 원봉협동농장 농근맹초급단체위원장 리춘옥을 비롯한 많은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농근맹원들이 만리마대진군길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각급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도 총돌격전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아래조직들에 해설담화자료와 예술선동자료를 비롯한 정치사업자료들을 내려보내주었으며 녀맹중앙예술선전대를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대고조진군으로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파견하여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누에치기운동에로 각급 녀맹조직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으며 인민군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다.

강원도녀맹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도양묘장건설전투장에서 시, 군들에서 선발된 녀맹예술선동대들의 경연을 조직하고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 양묘장을 새 세기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송림시) 녀맹위원회에서는 철강재생산에 떨쳐나선 남편들을 도와 녀맹돌격대활동으로 련합기업소구내도로포장을 맡아 해제끼였으며 좋은일하기운동으로 100여t의 파내화벽돌과 40여t의 파철을 수집하여 철강재생산에 기여하였다.

함경남도녀맹위원회와 라선시, 청진시녀맹위원회, 린산군읍초급녀맹위원장 차명화 등 많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해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떨쳐나서 만리마대진군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본사기자

화평땅의 참된 로당원

화평군 읍 76인민반에 사는 김창균동무에 대한 이야기

올해 나이가 70살인 김창균동무는 청춘시절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입당한 로당원이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후 그는 후대들을 키우는 체육교원으로 한생을 보냈다.

훌륭한 병사, 성실한 교육자로서 년로보장을 받을 때까지의 김창균동무의 당생활은 당과 조국앞에 티 한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하려는것은 산골학교의 체육교원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바친 김창균동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산림감독원》, 《수매원》, 《농장원》이 되여 평범한 일상생활속에 밤하늘의 샛별마냥 남모르게 새겨간 한 로동당원의 참된 삶의 자욱에 대한 이야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떠나서는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갈수 없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간직할수 없습니다.》

수십년동안 김창균동무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당과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해놓았다.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 수백정보의 잣나무림과 창성이깔나무림조성에 기여, 수십t의 파철을 비롯한 각종 유휴자재수집, 수매의 기록생산.

김창균동무가 교원생활의 나날에는 물론 년로보장을 받은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변함없이 나무모를 심고 파철을 수집하고 거름을 생산해온 불같은 헌신에는 공민의 의무적소행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큰것이 비껴있다.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나야 당원이 아닌니까.》하고 예사롭게 한마디 했을뿐이다.

그는 산림감독원은 아니였다

화평군 읍으로부터 강계로 향한 도로를 따라 5리가량 가느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3(1974)년 10월 30일 화평군에서 잣나무와 이깔나무같은 나무를 계속 많이 심을데 대한 교시를 주신 뜻깊은 곳이 있다.

나서자란 고향땅 화평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날 김창균동무는 강계에서 화평까지 먼길을 달려왔다. 그때 그는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강계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사업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도록 서계시며 교시를 하시였다는 장소에 선 김창균동무는 고향의 산들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둘러보았다.

(군사복무의 나날에 당기앞에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맹세를 다진 내가 아닌가. 화평사람들모두가 나무를 열그루, 백그루씩만 심어도 수령님의 교시는 얼마든지 관철할수 있다.)

얼마후 김창균동무는 화평군 중흥로동자구의 산골학교 체육교원으로 자진해왔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발자취를 남기신 후수리인숙주변에 어린 잣나무들을 심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열그루, 백그루가 아니라 산의 빈자리를 스스로 찾아내여 나무를 심어나갔다. 아마 화평군의 산들중에 그가 가보지 않은 산과 못 넘어본 령이 거의나 없을것이다. 일요일과 수업후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올랐다. 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고향땅에 깃들어있는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화평사람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정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라는것은 화평사람들이 대대로 받들고 집행해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뜻이란다. 어른도 심고 아이도 심으며 우리 대에도 심고 다음대에도 나무를 심으면서 고향 화평을 아름답게 꾸려가자.》

이렇듯 그는 학생들에게 롱구기술을 배워주기에 앞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자기 고향의 명예를 걸고 롱구경기에 나선 학생들은 도와 중앙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메달과 함께 나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서는 향토애와는 소중한 싹이 자라났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산골군인 화평땅에도 엄혹한 시련의 파도를 몰아왔다. 김창균동무가 제일 가슴아파한것은 가정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배를 곯는것보다 울창하던 화평땅의 산들이 점차 자기 모습을 잃는것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화평땅에 오시여 저 산들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화평군에 나같은 당원들이 수두룩이 있으면서 제고장산을 지키지 못했으니 수령님앞에, 장군님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수 있으랴.)

이것이 당원 김창균동무를 자나깨나 괴롭히던 아픔이고 고충이였다.

어느날 그는 안해에게 말했다.

《우리 집 터밭에 나무모를 심어야겠소.》

안해 박정봉동무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터밭에 나무모를 심겠다는거예요? 뙈기밭을 일구어서라도 식량보탬을 해야 할 때인데 당신은 참… 당신이 뭐 산림보호원(당시)인가요?》

김창균동무는 터밭의 한옆에 선 감자꽃이며 옥수수를 나날이 커가는 강냉이포기를 물끄러미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안해가 쓴 옳은 이 많도록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였다. 한창 자라는 자식들에게 배를 곯지 않게 하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안해에게 차마 더이상 말이 나가지 않아 김창균동무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날 밤 김창균동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정봉동무도 끝내 잠들지 못했다. 그는 남편의 고지식하고 결곡한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화평땅에 온 그해부터 남편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세말을 맞을 때마다 자그마한 책에 자기가 한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꼬박꼬박 적어넣군 하였다. 그리고 늘 그 책을 펼치고 하루하루를 총화짓곤 하였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짬짬이 심어가꾼 나무는 얼마나 많았던가. 그 나무들이 자라 무성해진 숲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체육경기에서 메달을 따올 때 못지않게 기뻐하던 남편이였다. 생나무가 찍힌 그루터기앞에서 그리도 괴로와하며 《나무모가 어데 더 없을가?》하고 안타까와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날 새벽 김창균동무는 호미를 들고 터밭에 나갔다. 한창 익어가는 푸르싱싱한 감자포기앞에서 그는 또 망설이였다. 이때 등뒤에서 인기척소리가 느껴졌다. 안해였다. 호미를 든 박정봉동무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서 나무모를 심자요.》…

김창균동무의 집 터밭에는 양묘장이 생겨났다. 잣나무와 창성이깔나무, 종비나무 등 많은 나무모들을 심었고 아침저녁 온 가족이 양묘장을 가꾸었다. 남들이 터밭에 곡식을 심고 가꿀 때 그들은 산에 심을 나무모에 정성을 쏟아부었다. 나무모와 함께 김창균동무의 자식들도 자랐다. 온 가족이 나무모를 기르고 산으로 오르는 그들을 마을사람들은 《애국자가정》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김창균동무의 둘째아들 김광선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겨울 김창균동무가 심한 고열로 병석에 눕게 되였다. 병으로 신고하던 그는 어렴풋한 의식속에 도끼질소리를 들었다. 도끼질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하여 뒤척 일어나던 그여서 안해를 찾아 물어보았다.

《강계에 있는 둘째가 와서 땔나무를 패고 있어요.》

《그렇소? 원 자식도…》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 다시 누우려고 하던 김창균동무가 갑자기 눈을 떴다.

《우리 집에 무슨 도끼질할 나무가 있단말이요?》

수십년동안 숱한 나무를 심으면서도 김창균동무의 집에서는 마른 풀잎이나 이삭나무 나무그루터기같은것을 때곤 하였다. 아버지의 그 성미를 잘 알고있는 둘째아들은 땔감으로 나무를 한차 싣고 왔던것이다.

김창균동무는 몸을 일고 밖을 내다보았다. 둘째가 패는 나무토막들은 하나같이 목재로 나무랄데 없는 허고나 굵은것들이였다. 그는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앉혔다.

《아무리 땔나무라 해도 그런 실한 나무를 쓰면 못쓴다. 저만큼 굵어지자면 십년나마 자라야 한다는걸 너도 잘 알지 않니. 제대군인들어린 네가 우리 원수님께서 산림복구전투때문에 얼마나 마음쓰고계시는지 모른단말이냐?》

김광선동무는 아버지의 꾸중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수십년동안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량심의 타이름을 톺아보며 딸과 사위도, 박정봉동무도 묵묵히 듣고있었다. 사연많은 그 나무들은 지금도 김창균동무의 집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있다.

김창균동무는 늘 산에서 생나무를 찍어 땔감으로 쓰는건 나라의 량곡창고에서 쌀을 훔치는거나 같은 나쁜짓이며 산에 나무를 심는건 애국중의 제일가는 애국이라고 이르곤 했다.

그는 산림감독원은 아니였다. 그러나 로동당원 김창균동무는 화평의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군의 일군들이나 산림감독원들만이 집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40여년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숲을 지키며 살아온 한 당원의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의 흐름을 우리 어찌 로동당원의 참된 당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수 있으랴.

당생활은 순간도 멈출수 없다

세월의 흐름이란 멈출수 없는것이다.

화평군《배움의 천리길》중학교(당시)에서 체육교원으로 사업하던 김창균동무가 년로보장을 받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였다.

토방에 걸터앉아 멍하니 먼산을 바라보고 있는 김창균동무의 귀전에는 학교운동장에서 와—와— 하는 학생들의 웨침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아마도 체육시간인듯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여노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 후 첫 당생활총화를 준비할 때의 허전하던 그 심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일감이 있어야 당조직앞에 총화할것도 있을게 아닌가. 아직 육신이 성성한데 부양이나 받으면서 당생활을 한다는게 어디 말이 된담?)

산에 더 많은 나무도 심어가꾸고 한가지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해야 당조직앞에서 떳떳이 당생활총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하루일과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 오히려 더 바빠졌다.

이듬해 12월 어느날 이른아침 김창균동무는 읍사무소 초급당위원회에 찾아갔다.

《저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파철 50t과 거름 100t을 마련하는것을 당적분공으로 주시오.》

초급당일군은 그를 만류했다.

《아바이야 년로보장자가 아닙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강선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들을 부르시였는데 당원인 나도 대고조전투에 한몫해야 할게 아닙니까.》

교원생활을 할 때에도 김창균동무는 나무를 심는것과 함께 짬짬이 파철도 모으고 거름도 생산해왔다. 길을 가면서 주운 파철조각들을 간수하곤 하여 늘 주머니가 인차 해지곤 하던 남편에게 박정봉동무가 언젠가 웃으면서 이렇게 핀잔한적도 있었다.

《이러니까 글쎄 애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직업이 수매원이라고 해서 교양원을 어리둥절하게 했지요.》

일감을 더 찾은 김창균동무는 일과표를 다시 짰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유휴자재수집, 수요일과 목요일은 거름생산,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가정양묘장관리와 나무심기…

방안벽에 큼직하게 나붙은 할아버지의 일과표를 어린 손녀애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시간표가 있나요?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는 이런 일과표가 없는데…》

《할아버지는 당원이란다. 당원은 다른 사람과 하루일과가 달라야 한단다.》

김창균동무는 마치 교원생활을 할 때처럼 하루생활을 시간을 쪼개가며 규칙적으로 해나갔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일감을 안고 더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다. 어느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다.

(파철을 비롯한 유휴자재들을 모아놓을 통이 있어야겠군.)

하여 그는 안해가 차곡차곡 건사했던 판자로 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박정봉동무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망치질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인지라 의아한 마음을 안고 다가가던 안해는 그만에야 야단을 쳤다. 집안에 변변한 가구가 없어 마음먹고 한장두장 모아놓았던 판자로 무슨 함이라니?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여 그의 집에는 큼직한 유휴자재수집함이 생겼다. 나날이 그 수집함에는 파철이며 페비닐, 파고무 등 유휴자재들이 부류별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깊은 밤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집거리에서 박정봉동무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있었다. 초저녁에 축수리에 모아놓았던 파철을 가져오려고 떠난 남편이였다. 이때 멀리서 따르릉— 종소리와 함께 불빛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불안한 생각으로 성급히 달려가던 그는 한자리에 멈춰섰다. 자전거를 무겁게 끌고 오는 남편의 모습이 눈가에 비쳐들었던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요? 글쎄 오던 길에 전번에 용접했던 자전거축이 또 부러지질 않겠소. 그래서 할수없이 이렇게 끌고 오는중이요.》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을 훔치며 아무 일도 없은듯 흔연히 대답하는 남편을 민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박정봉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눈짐작으로도 수십kg은 될것같은 쇠붙이가 짐틀에 실려있었던것이다.

《맨몸으로 오기도 힘든 그 수십리길을 저 파철까지 싣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날 밤 김창균동무는 끝내 몸져눕게 되였다. 파철, 파철 하며 헛소리치는 남편을 간호해주는 박정봉동무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흘러내렸다.

(누가 시킨 일인들, 제 집일인들 이렇게 극성일가!)

박정봉동무는 지금도 남편의 땀이 슴배어있는 조그마한 수매증서들을 가보처럼 소중히 간수하고있었다.

어느해 1월초에 김창균동무는 창고에서 손발구를 꺼내여 손질하기 시작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첫 전투로 거름을 내가야겠다고 늘 생각하던 그였다. 집뒤뜨락은 물론 마음의 어려곳에는 그가 전해에 봄내, 여름내 품들여 마련한 거름더미들이 있었다. 그가 집뒤뜨락에 무져놓았던 거름을 손발구에 싣고있을 때 안해 박정봉동무는 참다못해 지청구를 했다.

《농장원보다 더 극성이구려. 늘그막에 쉬염쉬염 하면 안되겠수?》

건강을 념려하는 안해의 마음을 잘 아는 김창균동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 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지 않았소. …》

김창균동무에게는 《로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비롯한 주요기사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신문철이 있다. 그 신문들에 실린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 당의 목소리를 심장에 새기며 그는 로동당원으로서 자기가 할 일감을 찾았다.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은 자자구구 빨간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고 또 읽어 보풀이 일 정도였다.

40여년세월을 김창균동무는 이렇게 살아왔다. 산림감독원의 일이든, 수매원의 일이든, 농장원의 일이든 당에서 중시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스스로 당적분공으로 정하고 꾸준하고 완강하게 집행해왔다.

언젠가 가까운 사람이 자넨 무엇을 바라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김창균동무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바라는게 뭐냐고? 있소. 아직 육신을 움직일수 있을 때 우리 원수님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은거요. 그 무슨 공로의 그늘밑에서 일손을 놓고 나라쌀이나 축낸다면 어떻게 당원이라고 하겠소.》

군사임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전우들은 그더러 영예군인수속을 해야 하지 않는가고 권고했었다고 한다. 그때에 병사 김창균은 《몸이 이렇게 성한데 왜 나라에 업히여 살겠소? 고향에 돌아가 당에서 배치해주는데서 일하겠소.》하고 마다했다.

로동생활은 나이와 함께 끝날수 있어도 당원의 참된 당생활에는 년로보장이 있을수 없다. 이런 생활지론을 안고 김창균동무는 오늘도 당기앞에 선서를 다질 때와 똑같은 마음과 발걸음으로 성실하고 량심적인 당생활을 수놓아가고있다.

* *

우리 당에는 김창균동무처럼 나는 당원이다라는 자각으로 남보다 한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찾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겨운 한짐을 더 먼저 내짚으려고 애쓰며 자나깨나, 밥술을 뜨고 잠을 잘 때에도 당원으로서 자기가 할 일감을 생각하는 참된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보수와 평가보다 헌신과 희생을 더없는 긍지로, 행복으로 여기는 이런 당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굳건한것이다.

화평땅의 참된 로당원 김창균동무의 당생활은 오늘도 만리마대진군의 거세찬 투쟁과 생활의 한복판에서 웅웅히 흘러가고있다.

본사기자 신 철
정영철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무대

《조국은 원수님의 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창작하신 65돐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무대 《조국은 원수님의 품》이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교원,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설화시와 기악종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으로 시작된 무대에는 시와 녀중창 《사랑하는 조국에》, 시랑송 《나의 조국》, 대중창 《고마운 우리 해님》, 소합창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리》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곧 조국이시라는 진리를 깊이 새겨준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참된 조국애를 심어주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에서 학생소년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바이올린중주 《세상에 부럼없어라》, 소합창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에 가요》, 남중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 등의 종목들은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온 나라 일을 다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우리의 친아버지이시라고 격정을 터친 평양중등학원 원아들의 시와 중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결의와 합창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로 끝난 시와 노래무대는 조국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준비해나갈 새 세대들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봄누에고치생산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각지 누에고치생산자들이 봄누에고치생산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잠업을 발전시켜 질좋은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잠업비단공업국산하 고치생산사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년초부터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일군들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한편 뽕밭관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등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기술적지도를 따라세웠다.

사리원, 사동, 정주, 룡림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누에치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적극 실현하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형제산, 금야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뽕나무비배관리와 누에치기를 잘하여 좋은 결실을 마련하고있다.

온천군, 합주군에서는 뽕잎생산량을 늘이고 누에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하는것과 함께 애써 마련한 고치들을 허실없이 따들이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함경북도안의 고치생산자들은 밀식뽕밭면적을 늘이고 뽕나무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평안남도, 강원도의 고치생산사업소 근로자들도 누에들의 생육조건에 맞게 누에칸의 온습도조절, 위생관리 등을 잘하여 고치생산을 늘이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만 지니면 작은 단위도 시대의 전렬에 설수 있다

2중3대혁명붉은기 토성제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를 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입니다.》

최근 토성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특히 여러가지 고려약들과 종합비타민, 차들이 호평을 받고있으며 일부 약들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공장에서 출품한 일부 약품들이 국제상품박람회와 국제상품전람회에서 많은 최우수상장들과 컵들을 받았다.

20여년전 불과 몇명의 종업원들로 첫걸음을 내디딘 공장이 오늘은 효능높은 약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힘있는 공장으로 전변되였다.

이 공장의 현실은 자력자강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결사의 정신으로 일어설 때 작은 단위도 얼마든지 시대의 전렬에 설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건이 결코 문제가 아니다

토성제약공장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그마한 건물에 합리적으로 배치된 생산공정들과 위생안전성이 보장된 현장들을 돌아보며 저도모르게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동화세계에서 나오는 다람쥐네 집같다고 롱삼아 이야기하고있다.

토성제약공장은 한마디로 ㎡로가 아니라 ㎥로 모든 생산조건이 집약화된 공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20여년전 김영권동무가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공장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갓 조직된 공장이다보니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 종업원이라고는 애어린 몇명의 처녀들이 전부였다.

(과연 내가 이 공장을 일떠세울수 있을가?)

공장의 실태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김영권동무의 머리속에는 문득 지배인으로 임명받던 날 구역당책임일군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물론 빈터에서 시작하자니 힘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기어이 공장을 일떠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구역당책임일군의 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수록 김영권동무는 일시나마 나약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결연히 일어섰다.

그때가 주체85(1996)년 7월이였다.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때에 김영권동무는 공장을 일떠세울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당시 그에게는 빈주먹뿐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낡은 담장을 허물며 생산건물의 첫 기초를 박는것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말없는 이신작칙이 애어린 처녀종업원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힘겨운 전투가 시작되였다. 연약한 처녀들이 자체의 힘으로 블로크를 날랐고 밤에는 밤대로 홰불을 켜들고 축조도 하고 미장도 하였다.

결사적인 투쟁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70여일만에 60㎡짜리 생산건물을 일떠세웠다.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첫 생산을 시작한 그날 온 종업원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되여 공장의 이름을 단 5가지 약생산이 시작되였다.

공장에서는 원료와 자재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직 이 길만이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활성화하는 길임을 종업원들모두가 잘 알고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영권동무는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여기서 본받을만 한 점은 제한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것이다. 일군들은 생산능력확장을 ㎡로가 아니라 ㎥로 하기로 계획하고 자그마한 공간까지도 모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갔다.

실례로 크지 않은 생산현장에 모든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위생통과실도 ㄷ자형으로 건설함으로써 자그마한 공간도 랑비없이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작은 공간에도 생산공정을 더 차려놓을수 있었고 여러가지 약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게 되였으며 위생안전성도 철저히 보장할수 있었다.

빈터에서 일떠선 공장의 현실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낼 결사의 각오를 한 사람에게는 결코 로력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며 자력자강의 정신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제품의 평가는 대중이 한다

일반적으로 약은 력사라고 말한다. 이 말속에는 모든 약이 결코 상표나 설명서로 인기가 있는것이 아니라 다년간 약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평가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어떤 약이든지 대중의 인정을 받자면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

특별한 광고나 소개는 없어도 토성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이 공장제품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자체의 힘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는 효능높은 약들을 생산해내려는 지배인 김영권동무의 남다른 개발의욕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올바른 경영전략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김영권동무는 약의 가지수를 늘이는것보다 한가지 약을 만들어도 대중의 호평을 받는 인기있는 약을 만드는것을 공장의 목표로 정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공장을 대표하는 약이 되도록 품을 들이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평신환만 놓고보자.

몇해전 어느날 김영권동무는 나이많은 로인들로부터 더 좋은 평신환을 만들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였다.

그때 김영권동무는 심한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는 그길로 평신환을 오래동안 먹어본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보며 효능이 높은 평신환을 만들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감칠맛이 있으면서도 약효가 대단히 높은 평신환을 만들어 인민들의 호평을 받게 되였다.

평신환뿐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것은 모든 약들이 약효가 높은데도 있지만 철저한 위생안전성이 담보된데 있다.

김영권동무와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진공건조기와 공기정화기를 만들어냈으며 비타민을 비롯한 모든 약성분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추출해낼수 있는 현대적인 무압력순환식추출기와 진공저온추출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도 약생산에 받아들였다.

로력조직과 관리, 자재보장과 생산 등 모든 경영활동이 집약화되고 째인 기업전략은 공장활성화의 중요한 비결로 되고있다.

초기에 5가지 지표의 약밖에 만들지 못하던 공장이 오늘은 수십가지 약들을 대량생산하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공장으로 전변되고 여기서 개발한 약들이 국제상품전람회, 국제상품박람회들에 출품되여 많은 상장을 받고 대중의 호평을 받는 인기약들로 자랑떨치고있는데는 지배인 김영권동무와 종업원들의 창조적인 사색과 헌신적인 일본새가 크게 깃들어있다.

이 공장의 자랑찬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과학기술이 안받침된 올바른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악하게 투쟁할 때 어느 단위에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스위스외무성 협조사무소 대표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피슬리 주조 스위스외무성 협조사무소 대표가 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스위스외무성 협조사무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스위스련방 대통령 도리스 로이트하르드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대표단 귀국

왓다흐 싸와쓰 기술, 공보 및 대외관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대표단이 1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로동과 국방에 더욱 튼튼히 준비하자

경기를 통해 본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수영을 적극 장려하여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에서는 평양시안의 20여개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접영, 자유형, 평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헤엄방법에 기초한 다양한 수영경기들을 진행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이번 수영경기는 치렬하게 승부를 다투는 체육경기로서도 볼만 하였지만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의미심장한 충격을 주는것이 있었다. 누구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자부하게 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것이다.

체육과 인격

경기에 참가한 남자선수들은 모두가 건장하고 다부진 체력의 소유자들이였고 녀자선수들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있었다.

녀학생 100m자유영경기와 배영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모두 평양의료기술대학의 학생들이였다.

어려서부터 수영에 취미를 가지고 창광원을 비롯한 여러곳의 수영장들과 물놀이장들에 자주 다니며 수영기술을 련마한 그들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교직원경기에 참가한 강좌장 김철룡동무는 두 녀대학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학생들은 학습과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고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모범, 도덕생활에서도 모범입니다.》

대견스러운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의 자부심은 이를데 없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7.8월해양체육월간에 높은 수영기술을 소유해나가며 건장한 체력과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난 녀대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깊었다.

그런가 하면 교직원 50m자유영경기에서 1등을 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원 정현철동무는 수영선수일뿐 아니라 배구장에서 나서면 단연 주공, 롱구장에서는 정확한 먼거리 넣기와 재치있는 련락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훌륭한 롱구선수이다.

체육으로 언제나 몸을 튼튼히 하며 단련된 그는 대학기간에 실력에서도 남보다 우수한 우등생이였으며 오늘은 교단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이들뿐이 아니였다. 경기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이 자신들을 건장한 체력과 고상한 정신, 높은 실력의 소유자로 준비해오는 과정에 련마한 수영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는 경기열의와 응원열의가 우리에게는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서로서로 자기 대학의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미더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군조선의 청년대학생들과 교육자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면모를 다시한번 안아보았다.

체육은 훌륭한 인격을 담보한다. 건장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과 높은 실력이 깃드는 법이다.

뜻깊은 이번 수영경기가,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이것을 말없이 증명하였다.

요람과 성장

이번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하나와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자기들은 전문훈련장에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안에 따르는 수업을 통하여 수영을 배웠으며 자기들의 모교에 꾸려진 수영장들에서 헤엄방법을 익히였다는것이다.

남학생 100m천리마영경기에서 1등을 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생 한주혁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4주로에서 전문선수들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푸른 물을 헤가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관람자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수영을 전문으로 배운적이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소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학교수영장에서 헤엄기술을 련마하였을뿐입니다. 그리고 7.8월해양체육월간에는 매일이다싶이 곳곳에 꾸려진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가군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수영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에서 마음껏 수영을 하였다.

사랑의 수영관에서 높은 수영기술을 소유해나가는 과정에 처음에는 학부수영선수로 선발되였고 점차 대학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라나게 된것이다.

해마다 진행되는 수영경기에서 언제나 1등을 하여 이제는 금메달이 10개도 넘는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얼마나 좋은 제도에서, 얼마나 훌륭한 요람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이 자라나고있는가.

문득 언제인가 읽었던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물놀이를 즐겨하던 어느 한 나라의 9살 난 소녀가 아메바미루스가 서식하고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한것으로 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였다. 또 미국의 23살 난 흑인청년은 자기의 수기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하는 14살 난 녀동생이 어느 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수영장을 더럽혔다고 인신모욕을 한 백인아이들과 언쟁한것이 죄로 되여 경찰에게 끌려갔다고 피타게 절규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 학교에도 수영장이 갖추어져있고 어디 가나 현대적인 물놀이장이 꾸려져있어 마음껏 수영활동을 벌리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한 일군은 해마다 학교수영장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이미 가지고있던 학교들에서는 수영장을 더 훌륭하게 개건하기 위한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당에서는 자그마한 학교수영장건설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내세우고있으며 7.8월해양체육월간에는 전국의 교육단위들에서 수영과목을 중시하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수영경기를 통하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다시금 안아보게 되였다.

경기참가자들은 수영주로에서의 1번수만이 아닌 이런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준 어머니당을 높은 실력으로 받드는 충정과 보답의 1번수가 될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자기들의 교정으로 떠나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효심

신원려관 훌륭히 개건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에서 신원려관을 훌륭히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신원려관 책임자 김복순동무는 지난해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이미 있던 려관건물을 훌륭하게 개건할것을 발기해나섰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시사회급양관리소 일군들은 자체로 려관을 개건하기 위해 떨쳐나선 이곳 종업원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려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개건공사를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총막공사와 벽체축조, 지붕공사를 비롯하여 일감은 아름차고 방대하였다.

하지만 책임자 김복순동무와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없이 벌려나갔다.

그들은 려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건물내외부를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그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대중식사실과 청량음료매대의 내부는 목재와 합성수지 등 건구류들과 마감자재들을 가지고 특색있게 꾸리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만들어 놓아놓았다. 수지창문과 출입문도 다시 달고 현관홀도 여러가지 타일과 건구류로 장식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시사회급양관리소의 일군들은 자주 현장에 나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종업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리하여 1층에는 대중식사실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식사실과 주방, 목욕탕, 리발, 미용실 등 봉사시설들이, 2층에는 10여개의 손님방이, 3층에는 대중식사실과 탁구장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려관을 훌륭히 개건한 이곳 종업원들은 지금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서고 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청춘의 기백과 열정 차넘치는 수영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수영을 널리 장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전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였다.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은정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바다를 끼고있는 기업소인지라 종업원들이 은정원의 수영장보다 마전해수욕장을 더 즐겨 찾을것이라는 우리의 추측과는 달리 수영장에는 많은 종업원들이 붐비고있었다.

련합기업소의 한 일군은 《교대를 마친 종업원들이 지금 수영을 하고있습니다.》라고 하며 우리를 수영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이 수영장을 즐겨 찾고있으며 혁신자들에 대한 식사도 마련해주군 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수영장에 들어서니 줄을 맞춰서서 준비운동을 하는 종업원들과 헤엄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주는 관리원들, 또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숙련된 솜씨로 신나게 헤엄을 치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푸른 바다에 온듯싶게 벽체에는 세찬 파도와 절벽들이 형상되여있고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의자들과 바닥타일들로 미루어보아 평양의 현대적인 물놀이장 못지 않게 꾸리려고 품을 들인것이 알렸다.

금시라도 물속에 뛰여들고싶은 충동을 한껏 느끼며 수영장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기교육까지 받고나면 바다에서도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깊은 말이였다.

결국 기업소안에 꾸려진 이 자그마한 수영장에서의 수영운동은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지름길이나 같았다. 수영장을 나서는 카바이드1직장 로동자의 이야기 또한 인상깊었다.

《이렇게 수영을 하고나면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고싶은 욕망이 끓어오르고 용솟는 열정과 기백은 그대로 비날론생산으로 이어지군 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떠날 때가 되였다. 기업소정문에 나서니 오후교대를 마친 종업원들을 싣고 마전해수욕장으로 떠나는 뻐스가 보였다.

우리를 바래주기 위해 나온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로동자들을 위해 해수욕장으로 오가는 뻐스도 보내주시였고 그때부터 해마다 7.8월해양체육월간이면 종업원들의 해수욕을 빠짐없이 조직하고있다고, 바다물에 들어가 쌓였던 피로를 다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르는 비날론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폐부로 절감하는 나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뻐스안에서 웃고있는 기업소로동계급의 밝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해양체육월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깊이 느끼였다.

이곳뿐이 아닌 평양326전선공장의 문명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청춘원, 수풍발전소의 부강원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근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이 꾸려져있으며 그안에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갖추어져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처럼 자기 단위의 수영장을 적극 리용하여 해양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간다면 모든 종업원들을 바다와 강의 정복자로,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주인공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본사기자

날로 높아가는 열의

중구역 동흥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것만큼 모든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물에 익숙시켜 누구나 다 수영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7.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전국각지의 학교들에서 수영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즐거운 방학기간인 요즈음 중구역 동흥소학교의 야외수영장도 늘 흥성이고 있다.

날마다 수영장에 찾아와 맑고 푸른 물속에 몸을 잠그고 저마다 경쟁적으로 수영동작을 익혀가는 이곳 학생들이다.

담임교원이 수영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물과 관련하여 알고있어야 할 상식, 물속에서 부닥치게 되는 이러저러한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한편 실지 동작을 해보이며 수영기초동작들을 원리적으로 인식시켜주어 학생들의 신심을 더해준다.

매일 학급별로 총화사업도 알심있게 진행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학생들의 수영기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영활동에서 모범인 학생들을 소개해주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되여 학생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준다.

보다 주목되는것은 학교에서 수영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아 수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는것이다.

교장 황미옥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수영장을 훌륭히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집단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면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야외수영장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개건하였다.

위생문화적인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고 물보장조건까지 빈틈없이 갖추어진 야외수영장에서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마음껏 수영을 배워가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넘실거린다.

비록 오늘에는 소학교의 작은 수영장에서 수영기초기술을 배워가고 있지만 래일에는 깊은 강과 바다를 정복하고야 말 새 세대들의 드높은 열의가 삼복의 무더위도 무색케 할만큼 날마다 이곳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높을뿐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단위로 알려지게 된데는 바로 이렇게 학교체육사업에 품을 들인데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키우는데서 소학교가 맡고있는 임무는 자못 크다. 기초가 튼튼하여야 높은 탑을 쌓을수 있듯이 소학교단계에서 수영기초동작들을 원만히 습득시켜야 앞으로 그들이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다.

이 학교에서와 같이 어려서부터 수영을 즐겨하여 몸을 단련하고 인내성과 용감성, 강한 의지와 담력을 키워 해양국의 주인공,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우리 새 세대들의 밝은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주경봉

경공업발전에 기여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 이룩

고려성균관에서

고려성균관 교원, 연구사들이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고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대학일군들은 교원, 연구사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연구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 있다.

첨단돌파전의 불길높이 대학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내열성절연권선에 의한 저온사출기유도가열방법을 새로 연구완성하였다.

이 방법은 수지가열설비들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수입설비에 비해 전력을 30%이상 절약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개성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단위들에 적극 도입되고있다.

고려방직학부에서 내놓은 국내원료에 의한 시약처리가공방법인 새로운 섬유가공방법은 경공업제품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되고있다.

두뇌전, 실력전의 열풍속에 고려인삼학부에서 연구한 인삼재배용복합미생물제제는 가물과 병해충피해를 막는데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인삼재배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고등수학강좌에서 개발제작한 태양열취사설비는 석탄과 전기를 절약하면서 가정에서는 물론 식당들에서도 쓰기 편리한것으로 하여 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대학에서는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교수안에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망라시켜 그들의 실천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원아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황해북도안의 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

황해북도안의 여러 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친부모, 친형제가 된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을 비롯한 황해북도안의 여러 대학들에는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의 리영식, 채장환동무들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지난 3월 황주중등학원을 졸업한 5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것과 관련한 일군협의회를 열고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대학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대학안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당의 사랑과 은덕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는데 품을 들이게 하였다. 상예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중등학원졸업생들은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학업실적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일군들은 그들의 대학입학을 축하하는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그들이 마음속 한점의 그늘도 없이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중등학원졸업생들에게 많은 학용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었으며 지난 5월에는 작업복과 비옷, 장화 등도 마련해주어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모르게 하였다.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의 책임일군들인 허성호, 정관순동무들과 교직원,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한 중등학원졸업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지난 2월말 대학입학수험생들속에 3명의 원아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들이 제일 좋은 기숙사호실에 들도록 하였으며 입학시험을 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입학시험을 친 원아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새기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또한 한 학생의 생일날에는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다른 한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 그가 빨리 몸을 회복할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밖에도 황북종합대학 고려약학대학, 황북종합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황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 등 도안의 대학들의 책임일군들도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과배치를 해주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개별분담하여 실력을 높여줄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기숙사호실들을 잘 꾸려주고 계절에 맞는 옷들과 운동복, 비옷, 장화, 구두 등을 갖추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을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내세워주는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진정에 감동된 중등학원졸업생들은 대학기간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조국을 빛내이는 훌륭한 기둥감이 될 굳은 결의를 다지며 분발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천일

순간의 답보도 있을수 없다

명학탄광 1갱 채탄3중대 전투원들의 투쟁

얼마전 우리가 명학탄광 1갱 채탄3중대 막장에 들어섰을 때는 발파심지에 막 불을 달려던 참이였다.

2교대의 박인명, 우영철동무들이 준비작업을 끝내고 철수하자 김성호동무가 불을 달았다. 잠시후 《쿵, 쿵―》 하는 둔중한 발파소리.

우리와 동행한 탄광일군은 채탄3중대원들이 지난 6월 28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련속련공, 련속발파를 들이댄다고 말하였다.

안전등불빛에 비낀 집심한 얼굴들, 석수가 흐르는 속에서도 발파연기가 가셔지기 바쁘게 채탄장을 차지하고 채탄, 운반전투를 벌리는 열정적인 모습들, 2교대시간까지 그들은 하루생산량의 근 1.5배에 달하는 석탄을 캐내였다. 증산의 희열이 넘치는 전투현장에서 우리는 결사관철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년간계획완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온 채탄3중대원들의 자랑찬 투쟁행로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지난 4월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자랑을 안고 태양절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온 중대장 진문철동무는 며칠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완수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평범한 광부들에게 돌려주신 친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중대장은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했던 자신을 거듭 책망하였다. 더욱 분발할 결심을 가다듬으며 그는 중대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자그마한 만족도, 순간의 답보도 있을수 없다. 오늘부터 중대는 상반년안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 진입한다.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전체 중대원들의 뜨거운 충정의 열기로 채탄3중대 막장은 혁신창조, 기적창조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날마다 석탄산이 높아가는 속에 어떤 날에는 하루계획의 근 3배에 달하는 석탄을 캐내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하였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오직 이 일념으로 채탄3중대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그러던 어느날 중대앞에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앞으로 계속 웃방향으로만 채탄막장을 전개한다면 그밑에 놓인 탄층을 그냥 지나치게 되여 전반적인 채취률이 떨어질수 있었던것이다.

불리한 탄상조건에서 수평중단채탄을 비롯한 각종 채탄방법을 도입하자면 무엇보다도 막장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채탄장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중대원들은 조구흥설치가 불합리한 수평중단막장에 관성식콘베아를 도입하여 운반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였다. 공기식받침대를 설치한 오가드릴과 동발회수기를 생산전투에 적극 리용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더욱 늘여나갔다.

날로 높아가는 막장의 기계화동음, 증산의 동음속에는 오직 석탄증산을 위하여 충정의 구슬땀을 흘리고 또 흘리는 채탄3중대 전투원들과 함께 철야전투도 벌리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리광옥, 정철식, 양호범동무를 비롯한 탄광책임일군들과 1갱 전체 탄부들의 고무격려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채탄3중대원들속에는 어느덧 증산이라는 말이 소중히 자리잡았으며 저탄장에는 그들의 헌신의 구슬땀이 어린 석탄산이 높이 솟아올랐다.

년간계획완수의 점승선을 눈앞에 가까이하던 어느날 중대장 진문철동무는 갑자기 온몸을 휘감는 모진 아픔으로 쓰러지고말았다. 언제부터 맹장이면 충수염이 끝내 일을 쳤던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침상에 누워있는 진문철동무에게는 신체의 아픔보다도 지난날 소박한 성과를 거둔 자기에게 거듭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다 큰 증산성과로 보답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이 더욱 갈마들었다. 자기의 몫까지 합쳐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는 중대원들의 투쟁소식을 알게 된 진문철동무는 강의한 의지로 불사신마냥 일어섰다.

수술한지 며칠만에 막장에 들어온 중대장을 보는 순간 대원들모두가 말없이 뜨겁게 그의 손을 그러잡았다.

《당중앙위원회뜨락에 피줄을 잇고사는 심정으로!》

오직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만을 아는 중대원들은 자신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부름이 담겨진 이 글발을 막장에 게시해놓고 년간계획완수를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소대별경쟁이 맹렬한 속에서도 서로서로 다음교대를 위하여 미리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해주고 뒤교대는 시간전에 입갱하여 앞선 교대를 도와 함께 일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져 동지적단합이 더욱 공고화되고 중대원모두가 혁신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그들속에는 20대안팎의 나어린 전투원들과 남편들을 도와 불철주야의 증산전투를 함께 벌린 최숙희, 최일심동무를 비롯한 가족소대원들도 있었다.

중대원모두가 아낌없이 흘린 애국충정의 뜨거운 구슬땀은 그대로 그들이 캐내는 검은금에 어리여 드디여 년간계획완수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온 독장땅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채탄3중대원들은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늘도 막장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우리야 탄부가 아닙니까.》

련합기업소적으로 제일먼저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한것을 축하해주는 우리에게 중대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말하였다. 소박하고 짧은 그 말속에서 우리는 절감하였다. 자기를 깡그리 불태워 뜨거운 열을 내는 검은금처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 한몸을 내대여 끝까지 헌신하려는 애국충정의 열기를.

검은금처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리라. 이것은 명학탄광 1갱 채탄3중대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인것이다.

명춘길

반공화국제재소동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미국주도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한 경탄과 대조선제재가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고 아우성치는 국제적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영국의 로이터통신, 신문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서방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은 가혹한 제재를 받고있지만 경제는 장성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조선의 경제가 최대속도로 장성한 사실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최근 몇달동안에 조선은 미국에 도달할수 있는 미싸일시험발사를 수차례에 걸쳐 단행하였으며 핵탄두를 미싸일에 탑재할수 있는 기술까지 장악하였다, 지난해 3월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가 채택되였지만 조선의 무역액은 감소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유엔의 대조선제재도 무맥하다는것이 드러났다, 조선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시하여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등 여러 나라의 인터네트신문, 통신들은 평양에서는 눈부신 건축물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창전거리가 건설된 때부터 평양에서는 해마다 하나씩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거리들이 솟아났다, 이러한 건설번영기는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악화시켜 핵포기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어엎고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라고 전하였다.

서방언론들의 평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이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에 우리 공화국이 어떻게 되여 적대세력들의 그처럼 악랄하고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좌절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며 신비스러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지 그 비결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게 말해줄 배짱을 가지고있다.

출중한 령도력과 비범한 예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해올수 있었다.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세계가 상상할수 없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할수 있는 모든짓을 다하였지만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기치를 내리우지 않고 또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문제시하며 필사적으로 반대해나섰다.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동원하여 제재봉쇄망을 바짝 조이며 광기를 부리였다.

남들이 다 하는 평화적위성발사도 우리가 하면 무작정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억지를 쓰며 《제재결의》를 날조해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막무가내로 《위협》으로 몰아붙이고 강도높은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지난해에만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박으로 될것이라느니,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미국은 혹독한 제재와 봉쇄에 우리 나라가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고 붕괴될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악랄한 제재소동은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다. 우리 공화국은 약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졌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놀음은 오히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을 배가시켰다. 이 땅우에서는 해마다 현대적인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가 짧은 기간에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으로서의 자기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놓아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련이은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놀음은 우리 나라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도록 떠민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지난 7월 4일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킨데 이어 28일 2차 시험발사에서도 대성공함으로써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여주었다.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뢰성을 또다시 터친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적로케트공업의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현실은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력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미국에는 우리를 압박할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더는 없다.

현실감각과 온전한 리성마저 잃은 미국의 보수계층속에서는 아직도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운운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다. 이것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분발할것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우리의 전략핵무력이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넣고있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만일 트럼프행정부가 대조선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반공화국제재압살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의 멸망만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에 《제재로 조선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것은 바보들이나 할짓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파괴할수 없다. 군사적행동은 무모한 도박이며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수 있다.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라고 한 조선문제전문가들의 말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미국에 경고하건대 잔명부지를 위해서라도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리 학 남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로씨야신문들 특집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들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쁘랍스까야 쁘라우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미술작품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전승절 7.27》, 《7월 27일은 승리의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의 그 모든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무엇때문인가?》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떠들며 《승전》을 호언장담하던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은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은 《어째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고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미국의 주요정책연구소들, 조선문제전문가들, 서방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속에서 대조선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련방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을 힘으로 압살하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적목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처절한 전쟁이였던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후에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면서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켰다.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수십년간 조선에 전대미문의 정치적고립과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얼마나 집요하고 극단적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으로 위협공갈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조선이 막강한 군사적힘으로 미국을 압박하고있다.

미국의 집권자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붙들고 시간을 보낼수록 조선의 핵억제력은 보다 강화되여갈뿐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여론이다.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미본토가 핵참화를 입는 것은 시간문제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자브뜨라》는 《조선전쟁의 본질》,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하고 여기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었던 미제가 련이어 패전장군들을 낳고 커다란 손실과 함께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한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전하였다.

신문은 또한 조선전쟁을 통해 미국의 허장성세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강대성》의 신화가 산산이 깨여져나간데 대한 미군장성들의 실토도 렬거하였다.

재미동포들 반전평화시위

재미동포들이 7월 27일 미국의 로스안젤스에 있는 남조선괴뢰총령사관앞에서 《싸드》의 남조선배치철회와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싸드》배치반대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의 성주군주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의미로 파란색옷을 입고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성명서와 편지를 괴뢰총령사관에 전달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을 끝장내고 적대행동을 중지하기로 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4년이 되였지만 오늘도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군사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쟁위협을 당하고있다고 격분을 터뜨렸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조선전쟁을 끝내라!》라는 구호를 웨쳤다.

한편 이날 뉴욕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도시중심부에서 《주한미군철수》,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등의 구호를 부르며 시민들에게 조미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밝힌 선전물을 나누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벌리고있는 미국의 제재소동이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회에서 우리 나라와 로씨야, 이란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제재법안》이 채택된데 대한 국제적반발이 커가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횡포하고 란폭한 행위에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였으며 이란은 미국회의 이번 제재법안채택을 자국에 대한 완전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처하여 보복조치법안들을 채택할것이라고 맞대응하고있다.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EU나라들도 미국의 대로씨야제재를 비난하면서 《미국제일주의》를 위해 유럽의 리익이 희생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는 강경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한편 중국과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제재위협도수가 높아지고있는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2차제재》가 중미사이에 엄중한 마찰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미국이 자기 나라에 가하려는 제재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제재소동은 철두철미 저들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단이다.

에네르기시장확보와 수출확대 등을 통한 《자국경제살리기》에 목표를 둔 미국의 제재는 경쟁적수들은 물론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리익도 서슴없이 침해하고있다.

미국의 제재놀음이 그 무법성과 파렴치성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세계는 저들의 리해관계만을 추구하면서 때없이 주권국가들에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강패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는 대조선제재책동도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과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복종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극단적인 제재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천백배로 굳세게 해줄뿐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항 8부두앞에서 7월 2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말 한마디 못하며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부산시당국과 국방부도 미군의 립장만 대변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강요한 분렬의 력사를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고 하면서 《싸드》배치와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화학실험실을 당장 폐쇄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책동을 중지하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정전협정 64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평화위협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은 북과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의 버림을 받는 시대의 찌꺼기

최근 괴뢰보수패당의 아성인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어 이목을 끌고있다. 이 지역에서 보수패당에 대한 지지률이 날을 따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자유한국당〉해체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이라는 단체가 조직되여 보수정당들의 목을 더욱 조이고있다. 그야말로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까지 《보수가 사멸되는 처지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대구, 경상북도지역은 괴뢰보수패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지지표밭》으로 불리워왔다. 이런 곳에서 보수패거리들이 각계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있는것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현상이다.

하다면 어째서 한때 괴뢰보수패거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이자들에게 등을 돌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인민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 하나의 부귀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미쳐돌아가고 한갖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꼭두각시노릇을 한 미치광이같은 박근혜의 추악상을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이 사건이 박근혜역도와 괴뢰보수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환멸과 증오심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기본원인으로 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구, 경상북도지역 주민들의 립장에서 볼 때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외에도 괴뢰보수패거리들을 미워할만도 한 다른 문제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에 이 지역이 남조선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뒤떨어진것이다.

리명박, 박근혜역도는 지난 《대통령》선거들에서 대구, 경상북도주민들을 꼬드기기 위해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힘을 쓸것이라는 달콤한 공약들을 늘어놓았었다.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해야 대구, 경상북도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날수 있다는 미련을 품은 사람들이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지지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였는가. 이 지역 인민들은 괴뢰보수패당에게 심히 기만당하였다. 그들은 한순간의 잘못때문에 리명박《정권》으로부터 박근혜《정권》에 이르는 근 10년간이라는 세월을 눈물과 한숨속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남조선의 지역경제성장률에서 이 지역은 꼴찌를 차지했으며 《국민소득》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제일 낮은것으로 평가되였다.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만 놓고보더라도 괴뢰역도는 경상도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들었던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해버렸다. 박근혜역도의 이런 배신적인 망동이 계속 이어지는 속에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실업사태는 날로 심각해졌다. 대구에서만도 20대 청년층이 《대구에서 살 생각이 단 1%도 없다.》,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는 대구이다.》라고 하면서 한해에 7 000여명씩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분노한 이 지역 주민들속에서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에게 지지표를 찍었던 자신이 저주스럽다고 하면서 아예 손가락을 자르고싶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매일이다싶이 터져나왔다.

괴뢰보수패당에게 기만, 우롱당한 대구, 경상북도지역 주민들의 반발심은 간단치 않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입버릇처럼 《지역민심》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대구, 경상북도지역에 특별히 애착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던 박근혜역적패당이 온갖 재앙의 화근인 《싸드》를 다름아닌 이 지역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하고 인민들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치를 강행한것이다. 미국상전의 리익을 위해 대구, 경상북도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은 주변나라들의 1차적인 타격목표로 되고 주민들은 언제 재난을 당할지 몰라 공포와 불안속에 발편잠을 못자고있다.

대구, 경상북도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괴뢰보수패당에게 저주와 분노를 퍼붓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력대적으로 괴뢰보수패당은 《지역감정》이라는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려 하였다. 언제인가 한 극우보수분자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도에 가면 김대중의 동상이 전보대보다 많다.》는 나발을 불어대며 경상도민심을 끌어당기며 한것은 괴뢰보수패당이 《지역감정》의 고취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날뛴 하나의 실례이다.

하지만 현실은 괴뢰보수패당이 고취해온 《지역감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지역발전을 억제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민심의 외면과 버림을 받고 완전몰락이라는 사상 류례없는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또다시 상투적수법에 매달리며 대구, 경상북도의 민심을 낚아보려고 꾀하지만 부질없는짓이다. 괴뢰보수패당의 그 낡아빠진 수법은 통할수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해충과도 같은 괴뢰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통치에 미쳐날뛴 시대의 더러운 찌꺼기인 괴뢰보수패당이 완전히 파멸당할 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전쟁연습중지와 미군철수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7월 27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평화행동을 전개하였다. 이 단체 공동대표는 거리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국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력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야말로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이라고 그는 강력히 단죄하였다.

한 대학생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죽음에로 내모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싸드》배치철회, 남조선미국동맹폐기, 분렬의 악폐청산 등을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서울의 미국대사관, 《자유한국당》사, 룡산미군기지주변에서 투쟁을 벌려온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쟁훈련 중단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북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설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배격당하는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

아프리카나라들속에서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과 내정간섭행위를 비난하고 서방이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죄행들을 인정하고 보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부룬디대통령은 독립절경축행사에서 옛 종주국들이 식민지통치기간 자국인민들에게 잔인한 행위를 한데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알제리대통령도 인민들은 프랑스가 식민지통치시기에 들씌운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 인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애국주의의 귀중한 원천으로, 영원한 민족적자부심의 동기로 될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아프리카는 과거에 식민지대륙으로,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웠다. 아프리카인민들은 드넓은 대지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었지만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략탈당하면서 가난과 빈궁에 시달려왔다. 그후 간고한 투쟁으로 독립을 이룩하였으나 서방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정책으로 자주적발전은 심히 억제당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서방식민주주의와 다당제를 강요하였으며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사회적불안정과 경제적침체, 내전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였다. 서방세력은 그것을 구실로 아프리카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서면서 불안정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서방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민주주의》나 《원조》라는것이 대륙을 또다시 식민지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끼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분발하여 일떠서고있다.

서방의 경제적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립적인 경제발전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사업도 추진하고있다. 대륙나라들사이의 인원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데 대한 결정도 채택하였다.

살진 고기덩이를 잃을것 같은 우려를 느낀 서방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영원한 신식민지로 만들려고 음으로양으로 획책하고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내세워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과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충동질을 받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의 8개 나라 국가지도자들을 포함한 30여명에게 유죄를 언도하였다.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은 자기들의 존엄을 짓밟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직접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아프리카자체의 사법 및 인권재판소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내세운 방법이 잘 통하지 않게 되자 서방은 아프리카나라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함부르그에서 진행된 20개국수뇌자회의기간에 프랑스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의 복잡한 민주화과정, 인구장성 등은 문명정도와 관련된다고 발언한것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하려면 서방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다.

가나대통령이 이를 단호히 배격해나섰다.

그는 아프리카의 발전이 늦어진것이 노예제, 식민지화, 대국들의 내정간섭과 관련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이 결코 문명수준과 관련될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아프리카의 행운이다, 인구장성의 로년기에 들어선 유럽은 로동력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아프리카는 청년사업에 투자하여 인구학적유용성을 높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서방의 신식민주의적정책과 내정간섭행위에 쓴맛을 볼대로 본 아프리카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무차별적인 살륙과 파괴를 일삼은 미제야수들

최근 미국의 AP통신이 《전쟁이 끝난지 64년이 되였지만 폭발물처리작업이 지속되고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AP통신사 기자는 함흥시교외를 취재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시기에 불발된 수천발의 폭탄과 박격포탄을 비롯한 실탄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있다. 지난 2월 이곳 로동자들은 건설장에서 비록 녹은 쓸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박격포탄을 발굴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370발의 폭탄이 소학교운동장부근에서 발견되였다. 함흥시에 있는 폭발물처리대는 지난해에만도 2 900발의 폭발물을 처리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약 1 200발을 처리하였다.》

기자는 계속하여 미공군이 얼마나 맹폭격을 가하였던지 1952년에는 사실상 폭격할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전쟁기간 조선에 3만 2 500t의 나팜탄을 포함하여 모두 63만 5 000t의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북조선에 떨어졌다. 조선전쟁은 력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들중의 하나였다.》라고 까밝혔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히틀러파시스트들도 얼굴을 붉힐 악독한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인류전쟁사에 기록된 침략전쟁들은 어느것이나 다 야만적인 학살과 무차별적인 파괴를 낳았다.

하지만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지난 조선전쟁과 같이 한 민족의 생존의 보금자리를 그토록 무참하게 파괴하여 페허로 만든 전쟁은 일찌기 없었다.

가증스러운 미제공중비적들은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갈가마귀떼처럼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와 평화롭던 도시와 마을들에 살륙과 파괴의 총폭탄을 퍼부었다. 우리의 도시와 마을들은 미제야만들의 무자비한 타격목표로 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쓸어도 질릴것이 없게 공화국북반부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뇌까리면서 대대적인 초토화작전에 열을 올리였다. 평양시만 해도 당시 인구 1인당 폭탄 1개이상이 해당될만큼 무차별적인 폭격을 들이댔다.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폭탄과 포탄들이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들씌워졌겠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나팜탄 등과 함께 나비탄까지 대량적으로 사용하여온 강토를 말그대로 초토화하였다. 공장과 기업소들, 살림집과 학교들, 병원과 진료소들, 극장과 영화관들 지어는 옛무덤과 절간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유적들까지 가차없이 파괴하고 불부셔버리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퍼부은 각종 폭발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적, 물적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였을뿐아니라 불발된채로 나라의 산야와 강하천, 가까운바다에 수없이 박혀 전쟁시기는 물론 전후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지난 60여년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서 제거된 미제의 폭발물들은 무려 80여만개에 달하며 지금도 살륙과 파괴의 잔해들은 계속 발견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이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흐르는 세월은 이 땅의 모든것을 변화시키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남긴 참혹한 페허도 이제는 그 자취를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미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던 우리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다.

하지만 산천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극악무도한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오늘도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무차별적인 살륙전, 파괴전을 재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을 수시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럴수록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만일 미제가 끝끝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분노를 터뜨려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